

도내 교원 자신감·활력 재충전

전북자치도교육청 '함께 休' 프로그램 3회차 걸쳐 운영 내장산 생태탐방원 등서 교사 100여명에 쉼·회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활동 침해 및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위해 '함께 休' 프로그램을 3회차에 걸쳐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은 오는 11~12일 내장산 생태탐방원에서 치유

가 필요한 3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1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어 10월 18~19일, 11월 15~16일에는 순창 실랜드에서 70여 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1학기에도 3회차

에 걸쳐 순창 실랜드에서 105명의 교원이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자연 속에서 특화된 회복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선생님들께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돌볼 수 있는 여유를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유·초·특수 교사

임용시험 평균경쟁률 '4.9대 1'

2025학년도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177명 모집에 87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4.9대 1로 나타났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는 54명 모집에 608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1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초등교사는 111명 모집에 199명이 지원해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수교사의 경우, 유치원은 2명 모집에 22명이 지원해 11대 1의 경쟁률을, 초등교사는 10명 모집에 46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제1차 시험에 한해 위탁선발을 의뢰한 2곳의 사립 특수학교는 3명 모집에 11명이 지원해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11월 1일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te.go.kr) 알림마당) 시험/채용/구직) 초등임용시험 게시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체육학과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이벤트를 가졌다.

(사진=우석대학교 제공)

우석대 체육학과, '창립 40주년' 이벤트

선후배 멘토링 결연·조별 협동·레크레이션 등 진행 "지역 사회에 스포츠 활동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

우석대학교 체육학과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전주캠퍼스 체육관에서 기념 이벤트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행사에는 학과 교수진과 재학생, 동문 등 100여명이 참여해 선후배 멘토링 결연과 조별 협동 활동,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연희 학과장은 "재학생과 교수진, 동문이 하나가 된 이번 기념 이벤트를 통해 학과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과는 동문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사회에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체육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4년 설립된 우석대학교 체육학과는 그동안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체육 전문가를 양성하며 국내 체육교육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 과정 2차 직무연수

전북자치도교육청, 11월 18~19일 도내 일반고 교사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월 18~19일 전주대학교 진리관에서 도내 일반고등학교 교사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 과정 2차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연수는 앞서 원격으로 진행된 기본과정을 있는 집합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진로·학업 설계 지도 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대입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운영 사례 공유 등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내일까지

수학교사 역량 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11~12일 이틀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수능형 평가문항개발 수학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등학교 수학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수학 문항 이해로 출제 및 평가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사의 학습 상황 파악 및 지도를 통한 학생 수학 학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유태 동의대학교 교수가 '평가문항 제작 방법 및 유의점'을 주제로 펼쳐지는 특강을 통해 수학 평가문항 제작의 원리와 실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이는 수학Ⅰ·수학Ⅱ·확률과통계 과목별로 평가 문항을 직접 제작·발표 및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기획됐다.

이에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제작한 문항을 발표한 후,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제작한 문항의 장단점을 점검하게 된다.

서거석은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은 수능형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지난 8일 경상국립대학교 초청 특강을 통해 대학이 나아가 할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플래그십 대학으로 나아가겠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 경상국립대 초청 특강 대학의 혁신 방향 설명·최근 성과 공유 등

양오봉 총장이 지난 8일 경상국립대학교 초청 특강을 통해 대학이 나아가 할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전북대에 따르면, 특강에서 양 총장은 국가의 경쟁력인 대학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감점 분야 육성 성과와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북대의 혁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거점국립대학의 중도탈락 신입생과 재학생의 증가 추세, 그리고 대학 입학자원의 급감 등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 학생은 대학을 떠날 것이고, 학생이 떠나면 지역도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교원 1인당 연구비와 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외국 대학 교류 교류 등에서 거점국립대 1위인 전북대의 강점 분야와 전북 GRDP의 1.34%를 차지하는 전북대의 지역 경제 영향력을 제시하며 지역을 움직이는 거점대학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국립대 최초 평가지원과 신설, 학과 평가 도입, 승진 제도 개선, 연구

기반 조성비 및 연구 학술 활동 사업 신설 확대 등을 통해 8천억 이상의 정부 사업을 유치한 최근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끝으로 새만금·군산-전주·원주-익산·정읍 등 3개 지역 군을 잇는 JUC 트라이앵글 지식학원 공동캠퍼스 구축과 모집 단위 광역화를 통한 학생 전공 선택권 보장, 외국인 유학생 5천명 유치를 통한 국제화 모델 구축,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남원 서남대 폐교 캠퍼스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의 전북대가 추진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

양 총장은 "전북대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적인 글로벌 모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찰스 다윈의 명언처럼 변화의 시기에 혁신의 노력을 거듭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플래그십 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지역 대학생에 도서관 완전 개방

지역 학습 환경 격차 해소

시설 개선·J-card 기반 모바일 원패스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서 정보 입력 후 방문 승인 받아 이용 가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도서관을 지역 대학생에 전면 개방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대학 학생들에게 학습자원과 프로그램을 개방해 지역의 학습·연구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전북대가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중앙도서관은 최근 1층을 전면 리모델링해 학생 및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중도라운지를 개소하고, J-card 기반의 모바일 원패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관 완전개방을 실현시켰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대학생들은 전북대 도서관 홈페이지(dl.jnu.ac.kr)에서 '회원제 가입'을 클릭해 정보를 입력한 후 재학생명세를 지참하고 전북대 중앙도서관을 방문해 승인을 받으면 전북대 도서관 앱인 J-Card로 전북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료대출은 물론 열람실이나 그룹학습실 등의 시설 이용, 그리고 도서관 주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고, 도서관 학술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전경

정보 이용교육이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책배달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학생뿐 아니라 연구자들에게도 다양한 학습·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학술자원 활용 및 정보 검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예산 중 500억 원을 지역 대학과 공유하고,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지역 대학에 개방해 지역과 지역대학이 모두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대학 간 담장을 완전히 허물어 누구나 전북대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 19일 '전주청년 프리마켓'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은 오는 19일 전주 객리단길 일원에서 '전주청년 프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사업의 참여자 중심으로 부스 운영을 지원하는 행사로 청년 창업가들의 다양한 아이템들을 다양한 품목별로 선보이고 판매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

장이다.

올해는 전주다운을 표현할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게 된 창업자들이 자리해 다양한 쿠키류 디저트와 목재, 뜨개, 라탄 등의 소품, 패스트, 핸드워시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